Q1. <경기틴즈뮤지컬> 사업에 2년차로 참여하게 될 경우, 전년도 프로그램과 작품을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올해 새로운 창작 뮤지컬 작품을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경우 작년에 진행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올해 신작을 창작하시기 전까지는 작년에 개발해 주신 작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 운영기관에서 예술감독을 선임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자체적으로 선임하신 예술감독의 이력서를 지원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에 선정되신다면 변화 없이 그대로 실제 사업을함께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 기한까지 예술감독을 선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최종 선정 되셨을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적합성을 심의에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술 감독의 최종 결정은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협의해주셔야 합니다.

Q3. <경기틴즈뮤지컬>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답변] 가산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과거 뮤지컬 교육과 제작 사업 경험을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실적은 심의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교육용 창작 뮤지컬 개발을 예술감독이 직접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Q5. 뮤지컬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진이 공연제작을 위해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요?

담당자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김지나 031-853-9784 [답변] 예술감독을 선임하신 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기관 별로 뮤지컬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시는 지에 따라 강사진이 신작 개발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작 개발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면,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과 라포를 형성한 강사진이 신작 개발진과 청소년 사이를 매개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과공연 연습과 발표 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청소년과 라포를 형성한 강사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Q6. 운영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가능은 하지만, 사업의 특성 상 안정적인 교육 공간 확보는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가능한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계신 장소를 확보해주시고, 불가피할 경우 MOU협약 등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지원신청서에 작성해주시면 심의 시 참고하겠습니다.

Q7. 지원금으로 행정 보조 인력(계약직)을 채용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경기틴즈뮤지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연 최대 30일 미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단기용역(일용인력)'만 가능합니다.